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2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17 청주(靑州) 용흥사(龍興寺)

일광삼존불, 한·중 불교교류의 증거

중국 허난성(河南省)을 넘어 동쪽으로 오면 산둥 땅에 이른다. 산둥은 예로부터 한국과 인관이 많다. 북위 당시 산둥을 점령한 군대가 당시 북위의 수도였던 대동지역까지 이주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산둥 육주의 백성과 고려인 36만 명과 기술자 10만여 명을 수도에 이주시켰다"고 기록할 만큼 산둥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산둥지역에 한국불교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이 바로 용흥사(龍興寺)이다. 용흥사는 훗날 당나라에서 한국 승려를 위한 '신라원(新羅院)'을 설치해, 한국과 인연이 더 깊다.

청주(靑州) 용흥사는 청주부내에 있었던 사찰이다. 청주부는 현재 산둥성(山東省) 청주시로, 756년 절도사가 설치돼 산둥성 일대를 관할하던 곳이다. 당대(唐代)에는 산둥성의 중심지였다. 1996년 청주박물관 확충공사 당시 용흥사에서 유물군이 대거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박물관 공사 당시 박물관 남쪽에서 구덩이가 발견됐고, 그 안에 인위적으로 파고된 불상 400여 구가 발견됐다. 이는 당시 고고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구덩이 안 불상들은 상·중·하 3개 층으로 정연하게 배열돼 있었다. 비교적 온전한 불상들은 구덩이 중심부에 놓여 있었고 불두들은 벽에 붙여 있었다. 유물의 시기는 북위부터 송대까지 이르렀고, 구덩이는 송대 이후 파헤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일통지(大清一統志)〉에는 "용흥사는 청주부 북문 밖 남양교 북쪽에 있었으며 북제(北齊) 때 남양사라고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익도현도지(益都縣圖志)〉에서는 "청주부 서북쪽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기록의 차이는 발굴 결과 청주부 내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미 북위(北魏)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9000㎡에 달하며 남북 3열로 된 3개 동의 원(院)과 대전과 승방자리도 확인됐다.

청주 용흥사 유물은 과거의 새로운 편린인 현대로 돌아온 놀라운 사건이다. 이 중 우리나라 불교전래 시기와 관련 있는 유물 중 기록이 남은 것은 미륵삼존상이나 석가모니불이 주를 이룬다. 이 불상들은 삼국시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초기의 중국불교 사상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반야계통의 공사상이나, 열반계통의 불성론, 각종 논서를 비롯한 사상이 중국 땅에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변화사상을 배경으로 한 석가모니불이 주류를 이뤘다. 〈법화경〉은 대중적인 경전 중 하나이다. 또



용흥사에서 발견된 '광배 하나에 삼존불이 같이 모셔진'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의 양식은 한국과 중국불교문화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한 불상이나 탑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뒷받침을 해준다. 이러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북위시대 무수한 석굴과 탑, 불상들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조성된 불교문화는 당시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흐름의 한 쪽에 무수한 세월을 땅 속에 묻혀 지낸 용흥사지의 불상들이 시대를 건너서 우리에게 한국불교와의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다. 용흥사에서 발견된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광배 하나에 삼존불이 같이 모셔진 양식)'은 이러한 용흥사지와 한국불교문화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초기 유물 중 일광삼존불이 보이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연관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흥사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인연연구원

부설(浮雪), 그가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해 겨울, 노장 한 분을 만나러 월명암에 갔었다. 부설 거사가 세웠다는 암자는 부설의 이름이 생 각난 듯 하얗게 눈이 덮여 있었다.

불도를 닦던 부설은 20년 만에 입을 연 묘화의 청혼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반들과 이별을 하고 묘화와 혼인을 한다. 아들 등운과 딸 월명도 낳는다. 어느 날 도반들이 부설을 찾아온다. 자신들의 공부를 뽐내며 부설을 딱하게 여기던 도반들은 뒤늦게 부설의 공부에 놀라며 고개를 숙인다. 부설의 이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엔 눈이 내렸다고 한다.

내리던 눈발이 잦아들었다. 안겨 중이던 스님들이 포항을 나왔다. 찾아간 노장은 후학들과 함께 안겨 중이었다. "먼 길 왔으니 공양부터 하세요." 노장의 범문이 기다리고, 월명암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부설, 그가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4도 불설아미타경

삼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섯 가지 나쁜 것으로 더럽혀진 악한 세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위해 아미타불 염불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전각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여래가 설법하고 있다. 여래의 백호에서는 양쪽으로 길게 광명이 뻗어 있고, 옆에는 스님 한 명이 시립하고 있다.

오탁(五濁)은 말세에 발생하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정신적·생리적인 5종의 더러움으로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을 말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탁악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 오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시대가 흐린 것[劫濁]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매우 많은 시대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지닌 채 속된 세계를 '수평적(일반적인 수행을 수직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때) 정도 수행법은 지금 있는 자신의 현재의 업 그대로를 가지고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극락세계로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초월하는 정도수행법이 없다면, 이러한 시대에 중생 제도는 실로 불가능할 것이다. 견해가 흐린 것(見濁)은 미혹하고 샅된 견해가 증대해 성해짐을 의미한다. 이들은 우리 몸이 소유하는 실재라는 견해, 죽은 뒤 우리가 소멸하거나 영원히 산다는 견해,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견해,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 우리가 주관

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제도된다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견해들로 미혹돼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으므로, 이것을 견해가 흐린 것이라 말한다. 견해가 흐린 속에서 정도법의 방편으로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도될 수 없다. 번뇌가 흐린 것[煩惱濁]은 탐욕, 진애, 무지, 오만과 의심에 의한 충동과 혼란이 점차 증대해 분쟁과 혼란이 일어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번뇌가 치성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보통사람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정도법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도될 수 없다.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린 탓으로 오온(五蘊: 색·수·상·행·식)으로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쳐 생멸·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를 말한다)이 조잡하고 추하게 섞여 임시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긴다. 따라서 중생이 흐리다[衆生濁]는 말이 생긴다. 중생의 모습과 마음은 추하다. 고로 흐리다고 말한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 흐리므로 속된 세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기쁘게 정도를 찾는 수행을 하지 않는 한 제도는 불가능하다. 수명이

흐린 것[命濁]은 우리가 지은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용렬하여 수명이 짧아져 100년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래서 수명이 흐리다고 말한다. 수명이 흐리므로 정도 수행이 아니고는 제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서원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던 시대가 흐린 것이 정정한 것들의 모임으로 변하고, 견해가 흐린 것이 무한한 빛으로 변하고, 번뇌가 흐린 것이 영원히 고요한 빛으로 변하고, 중생이 흐린 것이 정도의 연못에 태어나는 화신으로 변하고, 수명이 흐린 것이 무한한 수명으로 변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도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처해 있는 오탁악세의 사바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안락과 평안이 보장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익 대사의 말처럼 '정도 수행 말고 우리를 오탁악세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타는 집 안에서 공허한 논쟁의 혼란 속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겠다.

선학 스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4도 오탁악세사바국토정엄(五濁世界染國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cm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신묘부주밀법총해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거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